

2020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위선과 기만, 그리고 문학과 종교

한국 사회는 지금 예리하고 예민한 위선과 기만의 감각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위선의/에 대한 감각은 일종의 불일치의 경험입니다. 정치와 도덕의 불일치, 생각과 삶의 불일치, 판단과 행위의 불일치,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원리와 적용의 불일치, 학문과 실재의 불일치... 이러한 불일치, 그리고 이 불일치가 야기하는 거리와 낙차는 동시에 기만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불일치가 만들어 낸 위선과 기만의 감각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편으로는 불만족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분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겨울학술대회는 한국사회가 소환하고 심문하고 있는 이러한 위선과 기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문학과 종교는 다른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예민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이미-항상 이 위선과 기만을 다루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 문학과 종교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자체로 현실/삶과의 불일치를 체화하고 있는 영역, 그래서 어쩌면 그 자체로 위선과 기만을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새기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학과 종교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선과 기만의 문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기만은 거짓과 다릅니다. 참된 진술/신념이 우리를 기만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거짓 진술/행위가 언제나 우리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겨울 학술대회: “위선과 기만, 그리고 문학과 종교”에서 문학과 종교에 나타난 위선과 기만을 사유할 뿐만 아니라 위선의 가면 뒤에 존재하는 진실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칸트와 헤겔을 참조해서 말하자면, ‘위선의 가면’(현상) 뒤에 ‘진실의 얼굴’(본질)이 있을지, ‘위선의 가면’ 자체가 곧 ‘진실의 얼굴’일지 궁구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위선과 기만의 ‘현실의 시간’은 지나고 ‘학문의 시간’이 열릴 것입니다.

- ◆ 일시: 2020년 1월 9일(목) 9:30 ~ 18:00
- ◆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프라임관 201호, 203호, 303호
- ◆ 주최: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 ◆ 주관: 한국문학과종교학회

◆ 학술대회 일정표

일정	시간	장소	내용
등록	9:30~10:00		
개회식	10:00~10:15 (15분)	201호	사 회: 박소진(숙명여대, 학술부회장) 개회사: 유요한(서울대, 학회장) 축 사: 장영은(숙명여대 문과대학장)
휴식	10:15~10:30 (15분)		
제1세션 발표	10:30~12:20 (110분)	1분과(국문학) 사회: 최선경 (가톨릭대) 201호	개인적 글쓰기에서 공동체로의 도약: 종교적 서사를 통한 '진정'의 확대와 한계 발표: 유건수(서울대) / 토론: 김경은(서울대)
			심연 위 '아슬아슬한 다리'에서 펼쳐진 부단한 투쟁의 기록 -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자서전>에 대하여 발표: 흥기돈(가톨릭대) / 토론: 박성애(서울시립대)
			황석우 시 연구 발표: 김한성(숙명여대) / 토론: 홍주영(공군사관학교)
		2분과(영문학) 사회: 김치헌 (서강대, 총무부회장) 203호	Haunted and Hunted by Religious Capitalism: Mad Max and Co-operative Redemption 발표: 이희구(중원대) / 토론: 방인식(금오공대)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에 나타난 청교도적 운명의 비극적 재현 발표: 강준수(안양대) / 토론: 노동욱(삼육대)
			궁정풍 사랑의 문학에 등장하는 '레이디'(Lady) 연구: 이상화된 모습과 현실적 실체의 괴리를 중심으로 발표: 이현주(감신대) / 토론: 임성욱(연세대)
			트랜스휴머니즘과 기독교의 영생 발표: 김영원(서울대) / 토론: 방원일(서울대)
		3분과(종교/ 철학) 사회: 이재환 (가천대)	무한을 말하기: 레비나스 타자 현상학으로 본 문학의 윤리성 발표: 박옥주(연세대) / 토론: 임인구(연세대)

		303호	종교체험과 '역설(paradox)': 세속적 신비주의의 체험 보고를 중심으로 발표: 성해영(서울대, 대외협력부회장) / 토론: 방원일(서울대)
점심식사	12:20~13:30 (70분)	인근 식당 "더함"	
기조강연	13:30~14:30 (60분)	201호	사회: 최선경(가톨릭대) 강연: 서영채(서울대)
휴식	14:30~14:40 (10분)		
제2세션 발표	14:40~16:30 (110분)	1분과(국문학) 사회: 송인화 (한세대) 201호	말라르메와 김구용의 '반수신' 비교 연구 - 인류의 위선에 대한 두 태도 발표: 오주리(가톨릭관동대) / 토론: 김정현(전북대)
			신성성(神聖性)을 향한 감각적 갈등 양상: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를 중심으로 발표: 김남희(가톨릭대) / 토론: 이경희(이화여대)
			상처입은 모성과 그 종교적 의미로의 확장 가능성 - 구효서의 소설 《명두》를 중심으로 발표: 박종무(호원대) / 토론: 김종만(서강대)
		2분과(영문학) 사회: 박소진 (숙명여대, 학술부회장) 203호	시에 나타난 예언자적 언어의 시적 상상력 발표: 김성현(서울과기대) / 토론: 김치현(서강대)
			라깡, 지적, 케보이?: 파우스투스의 욕망과 죽음의 의미 발표: 김현주(중원대) / 토론: 이준의(대전보건대)
			예수의 비유 속에 나타난 세계 시민 의식 발표: 김병선(가톨릭관동대) / 토론: 노동욱(삼육대)
3분과(종교/ 철학) 사회: 김영원 (서울대)	위선과 기만 그리고 '고백'하는 주체들 - 고백이 드러내는 관계맺기의 규범화 양상들 발표: 이성근(서울대) / 토론: 이지훈(공군사관)		
	사회적 정의를 위한 한국 개신교-가톨릭의 연대: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1976~1989)의 사례를 중심으로		

		303호	발표: 김민아(인천대) / 토론: 최연정(서울대) 자기기만의 종교경험과 구원 발표: 김진숙(서울대) / 토론: 이재환(가천대)
휴식	16:30~16:40 (10분)		
제3세션 발표	16:40~17:50 (70분)	1분과(국문학) 사회: 홍주영 (공군사관) 201호	손창섭의 대중성 연구 발표: 곽상인(서울시립대) / 토론: 김민수(서울대) 박완서 소설 <배반의 여름>에 나타나는 기만적 서술방법과 위선적 행위 연구 발표: 박해랑(서원대) / 토론: 김재건(서울대)
		2분과(영문학) 사회: 노동욱 (삼육대) 203호	영국의 호주 선교를 통한 식민화 정책: 『피터 캐리의 오스카와 루신다』 발표: 박선화(건국대) / 토론: 박소진(숙명여대) 헤밍웨이 작품을 통해 본 위선과 기만 발표: 정신희(한남대) / 토론: 윤수현(경상대)
		3분과 (세계문학) 사회: 김경완 (숭실대) 303호	‘시’와 ‘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僞)전기: 게오르기 이바노프의 회상록을 중심으로 발표: 박선영(충북대) / 토론: 김민아(서울대) 레스코프 『성직자들』에 나타난 ‘고요’의 미학 발표: 신봉주(충북대) / 토론: 최진석(서울대)
연구윤리 교육 및 폐회식	17:50~18:00 (10분)	201호	진행: 유요한(서울대, 학회장)

◆ 기타 안내

1. 저녁 6시 이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저녁식사 이후 이사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